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조나탕은 달리고 있다. 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친 숨을 쉬고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그의 발은 멈추지 않는다. 마치 거대한 동굴 마냥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치다 이내 사라진다. 자신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식별할 수 없는 어둠 속 다급한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는 구역질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처럼 들려온다. 발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고조되는 음악은 피날레를 향해 간다. 저 멀리서 비춰오는 밝은 불빛이 주위를 가득 채우며 음악은 끝이 났다.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짙은 어둠 속 정적만이 다음 연주를 기다린다.

깊은 밤 꿈속의 그대에게

2308 박소울

얼마 전부터 우리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새벽 1시, 마을 중심에 있는 연못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두고 온다면 그 날 밤 한 남자가 꿈에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치한 이야기에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지나치게 맹신하는 몇몇 사람들 또한 존재했다. 그 중 하나가 이 이야기의 서두를 장식할 주인공 8살 소년 니콜라였다. 이제 막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던 니콜라는 새롭게 펼쳐진 거대한 공동체 속 모든 게 신기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정보의 공급이 마냥 즐겁기만 했던 니콜라는 얼마 전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에 꽂혀 있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남자의 이야기는 니콜라의 심장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말았다. 그 날부터 니콜라는 매일 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곰인형을 들고 외출을 시도했지만 엄마인 뤼시에게 빈번히 검거되고 말았다. (솔직히 말한다면 작년 생일선물로 받은 스마트폰이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겠지만 스마트폰이 없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니콜라의 잠자리를 지켜줬던 곰인형을 소원을 빌기 전까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타협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엄마가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한 니콜라는 숨소리마저 죽인 후 복도로 나왔다. 거실에 위치한 전자시계는 11시 45분을 알려주고 있었으니 앞으로 1시간 넘게 남은 셈이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분 단위까지 계산하려 했으나 그건 학교에서 배우던 것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지라 포기했다. 한 발자국, 다시 한 발자국, 니콜라는 자신이 거북이보다 느릴 거라 확신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복도를 무사히 지나 현관만 조용히 나간다면 그 후부턴 소리를 죽일 필요는 없었으니 연못까진 금방일 것이었다. 마침내 25번째 발도장을 찍은 후 현관에 다다른 니콜라는 온 신경을 손 끝에 집중한 후 문고리를 서서히 내렸다. 조금씩 내려가던 문고리와 함께 니콜라의 눈꺼풀도 함께 내려가려고 했다. 그도 그럴

게 10시가 넘어서까지 깨어있어본 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니콜라의 8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소원을 생각하며 간신히 피곤을 쫓아내는 데 성공한 니콜라는 과감히 문고리를 끝까지 내려 문을 열었다. 그 순간이었다.

빠리릭!

눈치없는 도어락이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니콜라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로 검지를 입에 대고 이 사이로 바람소리를 내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한 차례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히자 니콜라는 전력을 다해 방으로 뛰기 시작했다. 다급히 복도를 가로지르는 니콜라의 발소리는 전과 달랐다. 순식간에 그의 방에 도착한 니콜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신을 다해 자는 척 연기를 했지만 다행히 엄마는 아직 깨지 않은 듯 복도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다시금 도전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던 거까지가 전날밤의 기억이다. 늦잠을 자고 만 니콜라는 엄마 뒤통의 꾸중을 뒤로 한 채 서둘러 학교로 달렸다.

요즘 들어 부쩍 니콜라가 새벽까지 자지 않으려고 한다. 그 바람에 뤼시까지도 밤에 잘 수가 없었다. 니콜라가 어디를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잘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남편의 기일도 다가오는 와중에 뤼시도 심적 변화가 있었던 건지, “정말이지, 못말린다니까.”

뤼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피식 웃음을 터트렸다.

아침밥을 거르고 나간 니콜라가 걱정이 되었던 뤼시는 저녁이라도 든든히 먹이자고 생각하곤 저녁 재료를 사기 위해 현관을 나서다 곰인형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니콜라가 혼자서 자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었던 조나탕이 사다 줬던 인형이었다. “니콜라가 또 새벽에 나왔었나?”

뤼시는 니콜라의 책상 위 곰인형을 살포시 올려두곤 과거 추억에 잠겨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남편이었던 조나탕은 소방관이었다. 마보같이 정의감만 넘쳐나서 누구보다 먼저 화재현장으로 달려가곤 했다. 남들이 보기엔 훌륭한 소방관이었지만 자기 몸도 좀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그 시절 뤼시의 바람이었다.

“오늘은 고등어가 세일한다고 했었나?”

뤼시의 귓가엔 젊을 적 조나탕 웰즈의 부드러운 중저음 음성이 감돌다 이내 사라졌다. 언제나 낡은 중절모를 쓰고 있었던 그이가 뤼시의 눈앞에서 일렁이는 듯 했다. 햇살을 받자 그녀의 입가 주름이 따스하게 보였다.

“내가 어제 진짜로 봤다니까!”

같은 반 그로버가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어젯밤 연못에 자기 축구화를 두고 왔더니 꿈에서 소문 속 남자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신상 게임기가 드디어 내 수중에 들어오는구나!”

평소 허풍을 잘 늘어놓던 그로버였지만 이번만큼은 니콜라도 관심이 갔다.

“8살이나 먹고도 저런 걸 믿다니 아직도 애구나.”

짜깁인 아나베스였다. 아나베스는 선생님들에게 똑똑하단 이유로 귀여움을 받아 부러움을 사곤 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니라는 듯 덤덤한 척 했지만 속으론 그녀가 기쁨의 함성을 내질렀을 거라고 니콜라는 확신했다. 적어도 자신이었다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안타깝지만 이번엔 니가 틀렸다고 아나베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말야.”

둘은 자주 티격태격하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던 그 때, 아나베스가 입을 열었다.

“너도 저런 걸 믿어, 니콜라?”

평소라면 그로버의 허풍과 아나베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철학 사이에서 대충 얼버무렸겠지만 이번만큼은 니콜라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글쎄, 굳이 따지자면 믿는 쪽이랄까.”

최대한 불씨가 튀지 않게 중립적으로 말하려 노력했지만 아나베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듯 했다.

“못 믿겠다면 내일 게임기를 가져와 증명해주마.”

그로버는 아나베스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신난 듯 했다.

“준비됐나, 제군?” 하고 후 저녁을 배불리 먹은 니콜라는 곰인형에게 속삭였다. 전날 밤 도어락의 방해로 실패한 니콜라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봤다. 그 중 하나가 창문을 통해 나가는 것이었다. 도어락도 달리지 않은 창문은 잠금장치만 돌려서 열면 조용히 탈출 가능한 그야말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니콜라는 생각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니콜라의 집은 5층이었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숨겨진 초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니콜라는 떨어지는 순간 자신의 비행능력이 발현될 거라고 줄곧 믿어왔지만, 막상 창문 앞에 서고 나니 비행능력은 낮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방안은 도어락을 분해하는 거였다. 근데 아직 니콜라는 학교에서 도어락을 분해하는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였다. 세 번째 방안은 가장 현실성 없는 방안으로, 엄마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니콜라는 결판을 지을 생각이다.

“니콜라, 안 자고 뭐하니?”

방에서 나온 니콜라를 보고 놀란 엄마는 물었다.

니콜라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 후 입을 열었다.

“저, 엄마... 그... 곰인형이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해서... 잠깐 밖에 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니콜라는 실패를 예감해 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다. (이것도 실패인가.)

“어디 갈 건데?”

의외의 반응이었다. 이건 혹시 긍정의 표시?

그로버는 전부터 꿈꿔왔던 게임기를 얻을 생각에 하루 종일 들뜬 상태였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게임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전날 밤 아끼던 축구화를 두고 왔을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그로버의 꿈 속엔 소문 속 남자가 정말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구화 한 짝만으론 소원을 들어주기 부족하다고 했다. 꽤나 간간한 조건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한 짝 신발을 두고 온 후 잠든 참이었다.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깊은 어둠 속, 들려오는 중저음 음성이 주위를 울리며 꿈이 시작됐다.

“여어~ 눈썹 떠보라고.”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그로버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려했지만 감긴 눈을 뜰 수는 없었다. 떨어지지 않는 눈꺼풀이 꿈틀꿈틀거리자 웃음소리가 메아리친다.

“아무래도 네가 두고 간 물건에 애정을 더 줘야 됐던 거 같은데~ 이번만큼은 내가 특별히 도와주마, 난 네 소원이 마음에 들었걸랑~”

남자가 그로버의 눈꺼풀을 쓸어내리자 안간힘을 써도 떨어지지 않던 눈꺼풀이 마법처럼 떨어졌다. 아니, 그건 정말 마법이었다. 눈이 떠지자 그로버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건 어제와 오늘 두고 갔던 한 쌍의 축구화였다. 마치 실로 연결해둔 듯 공중에 떠있는 축구화는 자유롭게 허공을 헤엄치고 있었다. (신발이 수영을 하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건 안다. 그치만 정말로 그것은 헤엄치고 있었다. 오프라들었다 뿔뿔히 찢어놓는 반복하며 허공을 자유자재로 떠다니고 있었던 말이다.) 주위의 풍경은 미치도록 눈부시면서도 소름끼치도록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우주의 별 중 하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 해보라. 그런 신비로운 공간에서 또 한 번 마법이 벌어졌다. 이번엔 허공을 떠다니던 축구화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던 중저음 목소리의 정체가 자신의 축구화였던 것이다.

“그래그래, 놀랄만도 하지, 하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면 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걸.”

그로버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눈을 비볐다. 다시 한 번 앞을 보지만 자신의 눈 앞엔 여전히 축구화가 뚱뚱 떠다니고 있었다. 축구화가 말을 이었다.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어, 미안미안~ 그치만 하루에 나한테 전달되는 소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연못은 이 마을에만 있는게 아니라고. 그런 이유로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복제하고, 소원을 빈 사람이 바친 물건에 강림!”

그는 하이라이트라는 듯 목소리에 힘을 준다.

“그래서 빌고 싶은 소원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가 새어 나왔지만 그로버는 눈치채지 못한 채 그에게 답했다. 아니, 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의 입을 막았다.

“미안하지만 여기선 거짓말 금지야.”

어디서 꺼낸 건지 축구화의 발등 부분에 대문자로 쓰여진 LIE 위에 큼지막하게 X자가 그려진 커다란 표지판이 올려져 있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그로버는 그의 말에 뭐라 답을 해보려 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경쾌한 종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묻는다.

딸랑!

그 순간, 축구화가 불길에 휩싸였다.

얼떨결에 아들을 따라나가겠다고 해버린 뤼시는 니콜라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요즘들어 부쩍 이상하게 구는 니콜라가 뤼시에겐 낯설기만 했다. 니콜라가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가지고 다니지 않던 곰인형을 최근부터 들고 다니더니 오늘도 어김없이 그 곰인형을 들고 나왔다. 정말 조나탕의 기일이 다가와 그러는 건지 자식은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존재다.

“저기야 저기, 엄마.”

니콜라가 부르는 소리에 뤼시가 앞을 보자 어느새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연못에 도착했다.

젊은 시절 조나탕과 자주 걸던 길이기에 뤼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애야, 뛰지 말렴.”

달려나가는 니콜라의 등에 대고 뤼시가 외쳐 보았지만 니콜라가 그녀의 말을 들어줄 리 없었다. 연못 주위를 두른 산책로에 도착하자 차가운 밤공기가 뤼시의 뺨을

어루만졌다. 바람 속에 섞인 은은한 밤 내음이 뤼시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들 때였다.

“엄마! 엄마도 소원 빌어요.”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니콜라의 발치엔 곰인형이 놓여 있었다. 뤼시 또한 소문을 대충 듣긴 했지만 조나탕의 손때가 묻은 물건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느낌이 좋진 않았다. 니콜라가 보채오자 하는 수 없이 연못 앞 산책로에 들어선 뤼시는 물에 비친 니콜라의 모습이 조나탕의 모습과 겹쳐 보여 조용히 미소지었다. 만약 정말로 소원을 들어준다면... 뤼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자, 이제 너무 늦었다. 그만 들어가자.”

“네, 엄마.”

달콤한 과거를 뒤로한 채 뤼시는 니콜라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한다.

“근데 소원은 뭐 빌었니, 니콜라?”

“비~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니콜라는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뺨었다. 뤼시도 지친 몸을 이끌고 간단히 잘 준비를 한 후 부드러운 매트릭스에 몸을 맡기고 이내 잠에 들었다.

“저기요?”

익숙한 중저음 목소리가 들려오자 뤼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직감한다.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되새기던 그리운 시절의 꿈을.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자 익숙한 남성이 서있다.

“여보세요?”

“뭘지, 날 못 알아 보는 건가?”

혹은 서로 알지 못했을 때의 추억일 수도 있다.

“흠, 그러니까 두고 간 소중한 것은...”

그는 잠시 미소를 지은 후 말을 이었다.

“그럼 빌고싶은 소원이 무엇일까나?”

그의 말에 뤼시는 니콜라가 요즘 푹 빠져있던 소문을 떠올린다. 그러곤 눈앞의 남성을 바라본다.

“아뇨, 소원은 이제 됐어요.”

뤼시가 미소지으며 답하자 남성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다.

“그런가요?”

그 순간, 멀리서 경쾌한 종소리가 들리곤 뤼시의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진다. 반면 남성의 머릿속으론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혹시 누구시죠?”

뤼시가 당황한 기색을 띠며 낮설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난 분명 니콜라와 연못을 걷고...”

“정상적으로 소원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귀하께서 두고 간 소중한 것을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말한다. 그의 표정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런데 왜 울고있나요?”

뤼시는 남성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말을 꺼내자 조나탕 웰즈가 부드럽게 대답한다.

“그건 아마 당신과 같은 이유겠죠”

뤼시는 그제서야 자신의 뺨에 묻어있는 눈물자국을 느낀다.

“저... 저기.”

뤼시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밝은 빛과 함께 조나탕 웰즈가 희미해지더니 이내 뉘시는 잠에서 깨어난다.

니콜라는 커튼 너머로 새어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일어난다. 그의 옆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곰인형이 놓여 있다. 결국은 전날의 소원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져온 것이다. 허나 절대로 초등학교까지 입학한 니콜라가 아빠가 보고싶다는 등의 이유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마도.

아침부터 아나베스는 기분이 좋아보였다. 그로버가 신상게임기를 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버 또한 기분이 좋아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해외출장을 갔던 아빠가 돌아온다고 했다.

깜박하고 복제한 자신의 자아가, 아니 진짜 자신이 소원을 들어주러 온 게 이런 행운을 부를줄이야, 조나탕 웰즈는 속으로 미소짓는다.

“하지만, 역시 이건 돌려줘야겠지. 그나저나 이건 나에게도 큰 선물이었는걸~”

조나탕은 이 기억을 최대한 그의 가슴 속에 새기며 기억의 원래 주인을 만나러 발걸음을 돌린다.

